

‘기업가정신’ 긍정 인식 개선… 반기업 정서는 하락

증기부, 개인·기업 실태조사…침체 속에도 지표 개선

대기업보다 벤처스타트업 등 혁신성 높은 기업 ‘호감’

국내 기업가정신 수준이 3년 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기업 정서가 완화된 가운데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긍정 인식이 대기업과 중소기업보다 높았다.

증소벤처기업부와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은 4일 일반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기업가정신 실태조사’ 결

과를 발표했다.

기업가정신 실태조사는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의 기업가적 지향성, 기업가적 역량, 태도 및 인식 등을 조사·발표한다. 2015년 시작돼 2019년부터 3년 주기로 시행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인의 기업가정신

종합지수는 2022년 56.4점에서 2025년 56.6점으로 0.2점 올랐다. 항목별로는 ‘기업가적 역량’(0.4점), ‘기업가적 지향성’(0.1점)이 높아졌다. ‘기업가적 태도’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통계학적 특성별 분석 결과 성별에 따른 기업가정신 지수는 남성과 여성 모두 54.5점으로 차이가 없었다. 연령별로도 10대부터 60대까지 모두 54점대 수준으로 비슷했다.

2022년부터 도입한 ‘기업 인식’ 문항을 살펴보면 개인의 ‘기업에 대한 긍정 인식’

은 상승(0.5점)했다. 반면 ‘반기업 정서’는 소폭 감소(0.2점)했다.

기업 유형별로는 스타트업(64.3점), 벤처기업(63.8점), 대기업(62.9점), 중소기업(62.2점) 순으로 긍정적 인식이 높았다. 혁신성과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일수록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인식이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업의 종합적인 기업가정신 지수는 47.7점에서 51.4점으로 3.7점 상승했다.

항목별로는 △비전과 전략(0.2점) △

기업가적 지향성(2.4점) △문화와 구조

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기업가정신이 모든 기업에 균등하게 나타나기보다는 초기성장기업, 고도성장기업 중심으로 강화돼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증기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침체된 경제 여건 속에서도 개인과 기업의 기업가정신이 향상되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며 “앞으로도 정확한 통계정보를 통해 국내 기업가정신 활성화에 기여하고, 주요 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10대 그룹, 5년간 270조 지방투자 쏟는다

경제계, 이 대통령과 간담회…올해 5만1600명 신규 채용

경제계가 4일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 고용 창출을 위해 대내적인 투자로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또 삼성전자, SK, 현대차 등 10개 기업

이 올해 5만1600명의 신규 채용에 나선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간담회’에서 “주요 10대 그룹은 5년간 약 270조원 규모의 지방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며 “10대 그룹 외에도

다 합치면 300조원 정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을 수도

권으로 이동하고, 지방에서는 인구가 줄어

지역 소멸을 걱정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는 일이 무엇

보다 중요하고 시급하다”며 “경제계도 적

극적 투자로 호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시설이 수도권 중심으

로 자리 잡고 있다 보니 지방에선 사람을

구하기 어렵고 사람이 없다 보니 다시 기

업활동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 고리를 끊고 선순환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AI 격차 줄인다”…증기부, 지역 중소기업 AI 대전환

‘지역 주도형 인공지능 대전환’ 사업 참여 광역 지방정부 모집

정부가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AI 활용·확산과 지역 간 AI 격차를 줄이는 데 동참할 광역 지방정부를 찾는다.

증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지역 주도형 인공지능(AI) 대전환’ 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광역 지방정부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은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AI 활용·확산과 지역 간 AI 격차 완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최근 AI(인공지능) 기술 확산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AI 활용은 대기업에 비해 낮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활용 격차

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2024년 자료에 따르면 AI 활용률은 수도권이 40.4%지만 비수도권은 17.9%에 머물렀다. 지역 중소기업은 AI 전문 인력과 인프라 부족으로 지역 여건과 산업 특성을 반영한 정체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중기부와 중진공은 지난해 5개 광역 지방정부(경남·대구·울산·전남·제주)를 선정해 지역 AI 전환을 추진 중이다. 올해 2개 지역을 신규로 선정할 예정이다.

종소벤처기업부는 최근 광주시축구협회와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엘리트 및 유소년 축구 육성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장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대연물류는 매년 1500만 원씩 2년간 총 3000만원을 후원한다. 후원금은 유소년 축구 대회 활성화와 엘리트 유소년 선수 육성 사업 등에 활용돼 지역 축구 꿈나무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훈련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류지연 대연물류 대표는 “평소 유소

140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지역당 평균 70억원 규모로 사업을 지원한다. 총 사업비는 국비와 지방비, 자부담을 6:4 비율로 구성한다. 이 가운데 지방비는 전체 사업비의 20%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광역 지방정부는 지역 중소기업 등의 AI 활용·확산을 위한 AI 솔루션 개발 및 보급, AI 활용 인프라 구축, AI 인력 양성 등 프로그램을 기획해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10일까지 접수된 사업계획서는 추진 역량과 전문성, 실현 가능성, 지역산업 특성 반영 여부 등을 서면 또는 대면으로 평가해 우수한 광역 지방정부 2곳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eunzy@gwangnam.co.kr

(주)대연물류, 지역 유소년 축구 저변 확대 ‘앞장’

광주축구협회와 후원 협약
2년간 총 3000만원 지원

㈜대연물류가 지역 스포츠 후원을 통해 광주 유소년 축구 저변 확대에 나선다.

대연물류는 최근 광주시축구협회 사무국에서 지역 축구 발전과 유소년 축구 활성화를 위한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엘리트 및 유소년 축구 육성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장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대연물류는 매년 1500만 원씩 2년간 총 3000만원을 후원한다. 후원금은 유소년 축구 대회 활성화와 엘리트 유소년 선수 육성 사업 등에 활용돼 지역 축구 꿈나무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훈련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류지연 대연물류 대표는 “평소 유소



㈜대연물류는 최근 광주시축구협회 사무국에서 지역 축구 발전과 유소년 축구 활성화를 위한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년 축구와 인재 육성에 관심을 가져왔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아이들이 축구를 통해 값진 경험을 쌓고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수용 광주시축구협회장은 “지역 기업의 뜻깊은 후원에 감사드린다”며 “후원금은 협약 취지에 맞게 유소년 축구

모집기간 | 2026년 3월 13일(금) 오후 6시까지

개강일자 | 2026년 3월 26일(목)

모집인원 | 000명(선착순)

강의시간 | 격주 목요일 19시부터 80분간 (18시부터 석식 제공)

강의장소 | 추후 결정

학사운영 | 1년 과정 (1학기 : 3월~7월 / 2학기 : 9월~12월)

접수문의 | 광남일보 사업국 (T.062-370-7090 / 010-3394-9398)

접수방법 | 당사 소정양식(E-mail : gnilbo@daum.net / FAX. 062-370-7005)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중흥동 695-5) 4층, 광남일보 사업국

■ 2026년 주요 강사진



김경일
아주대학교 교수



김광석
한양대학교 경영교수
(경제 훑어주는 담사)



김동규
성균가



임진모
영화평론가



하다해
서울대 연구위원
<트렌드코리아> 광지자

광남일보